

노석 박영환: 역사와 개인 그리고 서사와 서정의 시인

이성철* · 이지한**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아나키즘에 대한 편견들 | 3. 박노석의 작품 세계 |
| 2. ‘사회’(社會)의 등장과 개인주의
아나키즘: 이론적 배경 | 1) 삶과 사회 |
| 1) ‘사회’의 등장과 ‘다른’ 사회의
모색 | 2) 사회와 시: 개인주의 아나키즘의
서정과 서사 |
| 2) 개인주의 아나키즘 | 4. 나가며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아나키즘 사상과 운동이 지닌 자유, 자치, 자주인의 의미들을, 박노석 시인의 삶과 작품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박노석 시인의 개인적, 시대적 배경들을 검토하면서 그가 아나키즘을 수용하고 이를 시작(詩作) 활동 등에 어떻게 수합하는 지 살펴볼 것이다. 3장은 주요 저서들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들이 담고 있는 역사와 개인, 그리고 서사와 서정의 교직(交織)의 내용들에 대해 비평하게 될 것이다.

* 주저자, 국립창원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교신저자, 국립창원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끝으로 4장에서는 아나키즘 시인으로서 박노석의 작품들이 지니는 의의와 전망 등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주제어: 아나키즘, 개인주의 아나키즘, 노석, 박영환, 서정과 서사

1. 들어가며: 아나키즘에 대한 편견들

아나키즘이라는 용어는 조제프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 1809-1865)이 처음 사용했다. 프루동의 에세이 ‘전쟁과 평화’는 톨스토이가 자신의 소설 제목으로 삼기도 했다. 무솔리니는 무정부주의자 크로포트킨이 쓴 『프랑스 대혁명』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아나키스트들의 운동은 초기 산업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질곡에 빠져있던 농민,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 ‘총파업’(general strike)이라는 용어도 아나키스트들이 처음 사용한 말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처음부터 국가와 자본의 맹공에 직면해야 했다. 예컨대 1894년 『뉴욕 타임즈』는 아나키스트를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조직된 경찰 조직은 훗날 인터폴의 전신이 되었다.¹⁾

우리나라에 아나키즘이라는 의미의 용어가 문헌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것은 1908년 『대동학회월보』 제2호에서이다. ‘무정부주의’라는 용어로 소개되었다. 이에 앞서 1898년 『독립신문』에 ‘무정부’라는 용어가 처음 언급된다.²⁾ 그러나 이 용어들의 실제적인 사용은 이보다 앞선 시기일 것이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문헌상의 언급은 대개 실질적인 활동 뒤에 언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마쓰 류지³⁾에 따르면, 일본의

1) 아나코-생디칼리즘(Anarcho-Syndicalism)이라는 흐름이 생기는 외부 배경 중의 하나가 된다.

2) 이한섭, 『일본어에서 들어온 우리말 어휘 5,800』, (주)박이정, 2022, 178쪽.

3) 小松隆二, 김창덕 옮김, 『일본의 아나키즘 운동사』, 도서출판 책과나무, 2025,

경우 아나키즘이 비록 단편적이고 부정적이지만 사회운동으로서 자리 잡고, 그 역할이 일반적으로 인식된 것은 1907년 전후부터였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아나키즘의 유입 시기가 거의 유사하다. 김창덕⁴⁾ 역시 아나키즘이 일본에서 운동으로서 일정한 위치를 갖게 된 것은 러일전쟁(1904-1905) 이후였다고 한다.⁵⁾

일본에서 아나키즘이 무정부주의로 번역된 최초의 체계적인 저서는, 당시 대학생이었던 게무야마 센타로(煙山專太郎)의 『근세무정부주의』(1902년)였다.⁶⁾ 이 책이 지닌 사상사적 의의는 중요한 평가를 받지만, 무정부주의를 허무주의 계열로 등치하거나, 사회의 질병과 해악, 완력과 폭동의 수단 사용, 망상자 등, 무정부주의로 번역된 아나키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착근하게 만든 면도 있다.⁷⁾ 아나키즘에 대한 이러한 편견은 한국 아나키즘 세대의 지도자이면서 허유 하기락과 오랜 교분을 유지한 柳林(1894~1961)이, 1945년 12월 2일 중국에서 귀국 후 조선일

25, 27-28쪽.

4) 위의 책, 8쪽.

5) 참고로 일본에서 무산자 또는 무산자계급이 처음 등장한 때는 1919년이였다. 『공산당 선언』에 나타난 프롤레타리아를 번역한 것이었다. 무산자 이전에는 ‘평민’으로 번역되었다(1904년). 번역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영란, 윤인로 옮김, 『불량한 책들의 문화사: 일본제국의 출판자본, 식민지 조선의 출판시장과 만나다』, 푸른역사, 2025, 24-53쪽을 참고할 것. 우리의 경우 무산자와 무산계급은 1921년 『개벽』 제10호에 처음 나타난다.(이한섭, 『일본어에서 들어온 우리말 어휘 5,800』, (주)박이정, 2022, 177쪽.)

6) 중국의 경우, 1907년 6월 日本留學生 劉師培 등이 사회주의강습회를 조직하고 天義報를 창간하며 중국 최초의 무정부주의 단체가 되었다. 같은 시기 유럽 유학생 李石曾 등이 1907년 6월 파리에서 新世紀라는 주간지를 창간하였다. 이들은 천의파와 신세기파라 불렸으며 신해혁명 이전 중국의 양대 무정부주의 단체였다.(白浩, 無政府主義精神與20世紀中國文學, 武漢大學博士論文, 2005, 199쪽.) 이 잡지들은 아나키즘이라는 의미로 일본식 번역어인 無政府主義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조세현, 「중국 아나키즘에 나타난 ‘西洋’ 이미지」,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35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335-367쪽을 참조할 것.

7) 小松隆二, 김창덕 옮김, 『일본의 아나키즘 운동사』, 도서출판 책과나무, 2025, 29-35쪽.

보와 가진 인터뷰 기사(12월 5일 발행)에서도 잘 드러난다. “무정부라는 말은 아나키즘이란 그리이스 말을 일본 사람들이 악의로 번역하여 정부를 부인한다는 의미로 통용되는 것 같은데, 본래 ‘an’은, ‘없다’는 뜻이고 ‘archi’는 우두머리 또는 강제적 권력을 배격하는 아나키스트이지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다. 아나키스트는 타율정부(heteronomous government)를 배격하지. 자율정부(autonomous government)를 배격하는 자가 아니다.”⁸⁾

역사적으로 볼 때 아나키즘에 대한 세간의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오해는 크게 볼 때 두 가지 지점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하나는 아나키즘이 주장하는 ‘국가 부정’에 대한 평가다. 그러나 아나키즘이 국가를 적으로 간주하는 데는 저간의 역사에 대한 통렬한 평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농민과 노동자가 수 세기에 걸쳐 착취와 압제를 끝낼 때마다 정치 계급에 의해 반드시 배반당했다는 점에서 국가를 불신한다. 두 번째는 아나키즘을 맑시즘과 대비시켜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이론으로 폄하한다는 점이다.⁹⁾ 그러나 이는 편협한 주장이다. 러시아혁명 초기에 아나키스트들은 볼셰비키에 협력해 반혁명 세력에 맞서 싸웠다. 그러나 반혁명 세력이 진압되자 레닌의 볼셰비키는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아나키즘 및 다른 정치 세력들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아나키즘은 러시아에서 명맥이 끊겼다. 우크라이나 빈농 출신의 아나키스트 네스토르 마흐노(Нестор Іванович Махно, 1888-1934)의 운동과 소멸 과정이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¹⁰⁾ 아나키즘과 맑시즘(엄밀히 표현하면 당대 러시아 사회주의) 사이의 쟁점은 ‘아나-볼 논쟁’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8) 정낙림, 「하기락과 근대성의 문제: 해방과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영남학』 제 84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3, 12쪽에서 재인용.

9) 맑스가 『철학의 빈곤』으로 프루동의 『빈곤의 철학』을 비난했듯이 처음부터 앙숙이었다.

10) 이에 대해서는 Tancrede Ramonet, <신도 주인도 없다: 아나키즘의 역사>, 다큐멘터리(2부), 2017를 참고할 것.

이 글의 본격적인 주제는 아니다.

이 논문은 아나키즘 사상과 운동이 지닌 자유, 자치, 자주인의 의미들을, 박노석 시인의 삶과 작품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박노석 시인의 개인적, 시대적 배경들을 검토하면서 그가 아나키즘을 수용하고 이를 시작(詩作) 활동 등에 어떻게 수합하는 지 살펴볼 것이다. 3장은 주요 저서들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들이 담고 있는 역사와 개인, 그리고 서사와 서정의 교직(交織)의 내용들에 대해 비평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4장에서는 아나키즘 시인으로서 박노석의 작품들이 지니는 의의와 전망 등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2. ‘사회’(社會)의 등장과 개인주의 아나키즘: 이론적 배경

1) ‘사회’(社會)의 등장과 개인주의 아나키즘: 이론적 배경

먼저 일본에서 ‘사회’라는 개념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 보겠다. 원래 society에 해당하는 일본어는 없었다. 쿠니(國, 国)나 한(藩, 번)과 같은 말은 있었지만, 이 말들은 개인을 단위로 하는 인간관계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쿠니’는 일본의 중세까지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된 지방행정 단위를 말하고, ‘한’은 에도 시대 1만 석 이상의 영지를 보유한 무사인 다이묘의 영지, 조직, 구성원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즉 ‘쿠니’와 ‘한’의 의미 속에는 종속관계, 계급관계, 상하관계, 권력관계 등이 들어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사회’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고, 오랫동안 ‘세상’이라는 말이 통용되었다. 지금도 일본어 사전을 보면 사회를 ‘世の中’이라 설명한다. 에도시대에 성행한 목판화를 ‘우키요에’(うきよえ)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부세화(浮世繪)이다. 덧없는 세상의 이모저모를 담고 있는 일종의 민화인 셈인데, 여기에 세상 세(世)가 들어있다. 일본에서 사회(society, 社會, しゃかい, 샤카이)라는 말은,

메이지(明治) 10년대(1868-1877) 무렵부터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아나키즘 사상의 등장 시기와 일치 비슷하다.

그러나 러-일 전쟁의 승리에 도취한 집권자들은 국민들의 총화단결을 강조하고 있던 때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 문물에 대한 동경 및 개인주의가 서서히 표출되던 시기로 나쓰메 소세키의 『도련님』 등이 발표되던 때였다. 다니구치 지로의 『도련님의 시대』(전5권)는 바로 이 시기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세키의 『도련님』이 집필되던 전후의 일본 모습이 드러난다. 이 책의 4권을 보면,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1838-1922)라는 인물이 나온다. 메이지 유신의 공신으로 두 번이나 총리를 지냈고, 일본 군벌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다. 그는 육군 내에서 ‘사회’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나아가 ‘사회’를 ‘지방’, ‘사회인’을 ‘지방인’이라고 부르도록 지시했다. 사회의 새로운 개념지향인 ‘개인주의’(이기주의가 아님!)를 극도로 혐오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사회’의 번역 과정에 대입시켜 보면 야마가토의 의도가 더욱 뚜렷해진다.

이 시기에는 사회갈등도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예컨대 아시오 구리광산 맹독사건(1892년)을 들 수 있다.(나쓰메 소세키의 <坑夫>(1908)와 NHK에서 방영한 드라마 <아시오에서 온 여자>(2014)도 이를 배경으로 한다.) 한편 지성사에도 큰 변화와 함께 탄압이 병행된다. 가라타니 고진은 메이지 시대에 민권을 외치던 사람들이 일제히 전향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전향의 배경에는 우승열패와 약육강식 패러다임으로 수용된 사회적 다윈이즘과 시대적 배경(1925년 치안유지법 제정, 1929년 세계대공황의 여파 등)이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한다.¹¹⁾ 이 시점은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년간이기도 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는 러일전쟁 이후 1905년경부터 1931년 9월의 만주사변 직전까지의 약 25년간을 지칭한다.¹²⁾ 이 시기 일본 지식인들은 앞 시기 메이지 시대에 받아들인

11) 柄谷行人, 조영일 옮김, 『근대문학의 종언』, 비고, 2020, 11쪽.

서구 문명을 소화하여 일본에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 일본문화를 서양에 당당히 전파하는 데 일정 정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만주사변 이후 상황은 급전된다. 만주사변은 일본 사회 내부의 대립을 첨예화시키고 대립과 대항의 존재를 소거시켜 버리는 사회적 공기를 만들어 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전환 계기가 된다.¹³⁾ 즉 제국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던 이론과 사상들이 패러다임 전환에 성공하고, 이것에 비판과 저항을 하던 지식인과 사상들은 철저한 탄압을 받거나 복류 또는 전향을 하게 된다. 사이텐스틱커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를 ‘연약한 꽃을 피우는 정도였고, 이름 말고 훗날에 남긴 것은 거의 없다’고 평가한다.¹⁴⁾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상계는 그렇지 않은 격랑의 시기였다.¹⁵⁾

이처럼 일본에서의 ‘사회’ 개념은, 지난한 번역 과정을 거쳐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번역에 이르러 현재의 뜻과 차츰 비슷해진다. 1875년 후쿠자와 유키치의 책, 『문명론의 개략』에서 ‘인간교제’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즉 ‘개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에서 벗어나 근대적 개인의 출현을 ‘사회’라는 개념과 연동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즉 옥스퍼드 영어사전(OED)에서 소사이어티(society)를 정의한 내용 중의 하나인, “같은 종류끼리의 결합, 모임. 조화를 이룬 공존이나 상호 이익, 방위 등을 위해 개인의 집합체가 이용하는 생활 조직, 방식”이라는 의미로 ‘사회’ 개념이 출발한 것이었다. 이 사전에는 사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도 소개된다.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한 관계와 자주성, 자율성 등”.¹⁶⁾ 즉 사회의 새로운 개념 지향으로서 근대적 개인이 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과 사회를 대립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12) 成田龍一, 이규수 옮김, 『다이쇼 데모크라시』, 어문학사, 2011, 10쪽.

13) 위의 책, 286-287쪽.

14) Seidensticker, Edward, 허호 옮김, 『도쿄 이야기』, 이산, 1997, 298쪽.

15) 이성철,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변형」, 동양사회사상학회, 『사회사상과 문화』 27권 1호, 동양사상학회, 2024를 참고할 것.

16)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柳父章, 김옥희 옮김, 『번역어의 성립: 서구어가 일본 근대를 만나 새로운 언어가 되기까지』, 마음산책, 2011을 참고할 것.

한편 서구에서는 근대적인 ‘사회’ 개념이 어떻게 등장했을까? 근대 개념은 항상 ‘자본주의’와 함께 시작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다. 프랑스혁명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이 배반당했다고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그들이 중요하게 요구했던 것은 ‘평등한 자유’였다. 로베스피에르 등이 참여한 정치 클럽인 ‘자코뱅파’(Jacobin) 혹은 ‘산악파’(La Montagne)들이 제출한 <인권선언> 수정안에는 ‘사회’라는 새로운 주어가 등장했다.(1793년) 여기서의 ‘사회’란 자코뱅파가 꿈꾸는 민주주의 공화국이 실현해야 할 그 무엇이었다.¹⁷⁾ “사회(강조 필자)는 그 사회 구성원에게 일자리를 조달하거나, 노동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 주어, 구성원의 생계를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10항) 뒤에서 살펴볼 개인주의 아나키즘에도, <인권선언> 수정안에 담긴 ‘개인’ 또는 ‘개인주의’와 같은 의미가 들어있다. 즉 사회 속의 개인들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늑대’(Homo homini lupus est.)와 같은 유아적(唯我的) 존재나 고립된 것이 아니라, 협동하고 연대하는 개인들의 관계로서 ‘다른 사회’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또 다른 사회의 발견은 이들이 처음은 아니었다. 바뵈프, 생시몽, 오언, 푸리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친 플로라 트리스탕(화가 고갱의 외할머니)¹⁸⁾, 그리고 사회 발전의 과학적 법칙을 탐구한 오귀스트 콩트 등이 선발대였다.¹⁹⁾ 특히 소비협동조합 로치데일 공정개척자조합(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17) 장석준, 『사회주의』, 책세상, 2013, 23-24쪽.

18) 플로라 트리스탕과 칼 맑스의 일화를 소개한다. 트리스탕은 노동자들의 단결과 조직화를 위한 방편으로 『노동자 동맹』이라는 잡지를 발간한다.(1843년) 이 잡지를 출판하기 위해 셴 강변의 인쇄소를 찾는다. 그런데 이 인쇄소에는 먼저 인쇄를 기다리던 또 다른 잡지가 있었지만, 트리스탕의 잡지를 급히 인쇄하느라 순서가 뒤바뀐다. 먼저 원고를 갖고 온 남자는 불평했다. “이따위 잡동사니 글 따위를 인쇄하느라 내 잡지가 늦어진다.” 이 남자는 칼 맑스였고, 그 잡지는 『독불연보』였다.(김미라, 『예술가의 지도: 예술가의 초상, 그리고 그들의 네트워킹』, 서해문집, 2014를 참조)

19) 장석준, 『사회주의』, 책세상, 2013, 30-44쪽.

Pioneers)은 현재의 협동조합 운동이나 새로운 미래 또는 다른 사회를 위한 전망을 직접 실천했다. 예컨대 “밀가루 6자루, 오트밀 1자루, 설탕, 버터 조금, 그리고 양초에서 시작한 로치데일 개척자들은 근대 협동조합의 기반을 마련했다. 설립 이후, 30년 만에 찰스 호워드(Charles Howarth)가 고안한 모델은 서방 곳곳에 알려졌다. 협동조합은 여성에게도 평등한 조합원의 권리를 갖게 했으며, 1864년 엘리자 브리얼리(Eliza Brierley)가 여성 최초의 조합원이 된다. 여성이 투표권을 획득하기 82년 전 일이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 협동조합은 전 세계에 약 10억 명의 조합원, 140만 개의 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나키즘이 추구했던 ‘개인과 사회의 상생’과 맞닿는다.²⁰⁾

2) 개인주의 아나키즘

아나키즘의 한 갈래인 개인주의 아나키즘이 대안 공동체 운영에 집중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콜린 워드가 말하는 개인주의적 아나키즘과 상통한다.²¹⁾ 왜 아나키즘 앞에 ‘개인주의적’이라는 관형어가 붙었을까? 워드에 따르면, 이러한 관형어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긍하게 된다. 즉 이들은 약탈적 자본주의를 철저히 불신하고 상호주의를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과는 달랐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나 레이첼 카슨이 대표적 예이다. 이들은 세상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과 사회구조를 변혁시키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서 파악한 인물들이었다. 즉 개인과 사회를 이분법으로 사고 하지 않고 긴장을 견지한 ‘동적 균형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20)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Holyoake, George Jacob, 정광민 옮김,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 그물코, 2013.와 이성철, 「노동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빌 더글러스의 <동지들>을 중심으로」,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Vol.9, No.3,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2025, 177-193쪽을 참고할 것.

21) Ward, Colin, 김성국 옮김, 『아나키즘이란 무엇인가』, 이학사, 2019.

한편 ‘개인’(individual)은 ‘나눌 수 없다’는 뜻도 지니고 있다.(in+divide) 이는 개인이 특유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개인들은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따로 또 같이’인 셈이다. 그러므로 개인 속에 이미 공동체 지향성(자유, 평화, 사랑, 인류애 등)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집단들의 모임(구조로서의 社會)뿐 아니라 개인들이 아래로부터 만드는 공동체도 사회(행위로서의 私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구별된다. 집단 이기주의나 개인적인 이기주의 모두 社會와 私會 간의 성찰적 상호작용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다.

오스카 와일드(1854-1900)는 그의 『미학 강의: 사회주의에서의 인간의 영혼』(1891년 출간)에서 개인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는 사회를 유기체(organism)로 전제하면서 유기체를 구성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각 기관(organ)이, 사회의 최대 목적인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곧 개인주의라고 말한다. 이를 ‘자발적 연합’이라 부른다. 이는 당시 영국의 허버트 스펜서(1820-1903) 등이 주장한 기능주의적 사회관과 유사한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 그러나 와일드의 사회 즉 유기체는 사유재산이 사라진 국가를 말한다. 그가 그리고 있는 인간상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사회-개인’의 도래를 위한 인간의 조건은 불복종과 저항이다. 불복종은 인간의 원초적 미덕이며 이를 통해 역사의 진전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²²⁾ 근대 산업사회가 가져온 병폐들을 넘어서려는 와일드의 주장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적 병폐를 진단하고 있는 테리 이글턴과 연결된다.

테리 이글턴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 특징 중 하나인 포스트모

22) 와일드는 혁명을 거부하는 페이비언 사회주의자였지만, 상당수의 사회주의자들이 지니고 있던 권위와 강제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비판한다.(서의윤, 「옴진이 해제: 오스카 와일드의 개인주의와 유티주의를 푸는 열쇠」, Oscar Wilde, 『미학 강의: 사회주의에서의 인간의 영혼』, 도서출판 줍쌀한알, 2018, 9-27, 138쪽.)

더니즘에 대해 여러 저작에서 지속적으로 비판한다.²³⁾ 다원주의를 내거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일견 매우 관대하고 포용적인 이론으로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가능한 한 다양하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회 질서를 믿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포스트모더니즘은 개인주의를 매우 중시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글턴은 자본주의 특성이 원래 그렇다고 말한다. 자본주의는 옛날에 자신이 희생시킨 사람과 친하게 지낼 준비가 되어 있고, 될 수 있는 한 온갖 다양한 문화를 뒤섞는 데 열심이다. 그래야 자신의 상품을 모든 문화권에 팔 수가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역설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닌 다양성과 개인주의를 옹호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흔히 분할과 배제를 양산하고, 원자화된 개인을 정착시켜야 대중들이 구조화된 모순에 눈을 돌릴 수 있고, 그들만이 유일하게 계급투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²⁴⁾ 이글턴의 독특한 화법이다. 그러나 이글턴도 오스카 와일드처럼 자본주의와 맞선 개인주의를 중요시한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말하는 다양성은 위계성을 감춘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사의 배경음악은 자르기와 찌르기다. 혼종성과 다원성의 천사같은 측면에는 주목하지만, 악마 같은 면들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처럼 자본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이타주의를 표방하며 이기주의의 감상적 얼굴로 웃고 있는 것’이다.²⁵⁾

이런 점에서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은, 남종석이 비판한 ‘진보적 자유주의’와 변별성이 있다.²⁶⁾ 이들은 경제의 금융화와 세계화를 주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시장경쟁에서 패배한 이들

23) 예컨대 Eagleton, Terry, 이재원 옮김, 『이론 이후』, 길, 2010; Eagleton, Terry, 이강선 옮김, 『문화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2021 등.

24) Eagleton, Terry, 이재원 옮김, 『이론 이후』, 길, 2010, 36쪽.

25) 이성철, 「지금, ‘시장 밖 예술’을 생각하며」, 시장밖예술프로젝트 집행위원회, 『바깥으로 한 발: 시장밖예술프로젝트 2024』, 호밀밭, 2024 참조.

26) 남종석, 『더 나은 진보는 불가능할까』, 두두, 2019.

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갖는다.(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미국 민주당, 토니 블레어의 영국 노동당, 슈뢰더의 독일 사민당, 그리고 프랑스의 사회당 정부의 담론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박노석의 예술 세계를 살펴보기 전에 연관된 이론 배경을 살펴보았다. 필자들은 박노석의 작품 속에는 개인과 사회의 긴장감 있는 길항작용과 개인주의 아나키즘 사상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그의 삶과 작품들에 대해 토론할 것이다.

3. 박노석의 작품 세계

1) 삶과 사회

노석(奴石) 박영환(朴永煥)은 경남 함양군 안의(安義)면 출신이다. (1913-1995) 『행운유수: 노석 박영환 선생 팔순 기념 시문집』에(이하 『시문집』으로 약칭) 노석(이하 노석이라 칭함)의 약력은 다음과 같이 소개된다.²⁷⁾ 해방 전: 향리에서 조선일보 지국 경영²⁸⁾, 조선노동청년동맹 가담(비밀결사) 해방 후: 진준 경남연맹 조직책, 독립축성협의회 경남의회 연락책, 반탁 국민운동총연맹 경남연맹 조직책, 자유민보 창간 동인 전무, 논설위원, 경남일보 편집국장, 영남문학회 동인, 「嶺文」誌 주간, 「鄉友」誌 주간, 「月刊民主」誌 주간, 갈숲 동인, 한국문인협회원, 3.1 동

27) 박노석, 『행운유수: 노석 박영환선생 팔순기념시문집』, 빗남, 1994.

28) 노석은 부산의 삼화고무 서기로 재직하던 중 소설가 김말봉을 알게 된다.(22세) 김말봉은 노석에게 일본인 공장에서 청춘을 보내지 말고, 민족을 위한 계몽운동은 신문이 유일하니 신문지국을 맡아 독자를 확대하는 것이 민족을 여는 길 잡이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이에 김말봉은 당시 조선일보 자매지 『조광』의 주간을 맡고 있던 노산 이은상 앞으로 소개장을 써준다. 노산의 주선으로 안의에서 조선일보 지국을 맡아, 6개월 뒤에는 함양 지국도 운영하게 된다.(최해군, 「소설가 김말봉과 그 곁 사람들: 김말봉과 박노석」, 『부산일보』, 2003. 4. 21.)

지회 부이사장 등이다. 그는 본명인 영환보다 호인 노석을 즐겨 사용했다.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배어 있는 호다. ‘호가 본명처럼 굳어진 사람이다.’²⁹⁾ 그리고 안의(安義)는 ‘한국 아나키즘의 성지’ 또는 ‘자유’의 대지’로도 불린다.³⁰⁾ 노석은 자신의 고향 함양에 대한 시 「함양의 노래」도 남겼다.³¹⁾ 시 속에는 그의 지정학적 자부심이 넘쳐난다.

천왕봉 서린 기상 상림숲 모도우고
 문 창후 세운 예도(禮道) 천년의 선비의 고장
 위천수 내린 물이 엄천강 즐기 되어
 목화밭 덩불 지나 남강 혼 꽃 피웠네
 아 자랑스런 내 고장 함양.

황석산 피바위에 애국심 어려있고
 박 연암 실학정신 슬기로 다진 고장
 좌 안동 우 함양 그 영에 새로 다져
 의기로 지조로 미래를 열어가리
 아 사랑하는 내 고장 함양.

노석은 아나키즘 사상을 언제부터 접했을까? 송희복에 따르면, 그가 15세 되던 무렵에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마을 청년들로부터 아나키즘 사상을 처음 접했다고 한다. 방한상(方漢相)이 대표적이다. 방한상은 1899년 함양 출신으로 1923년 와세다대학을 중퇴하고 귀국했다. 대구에서 가업인 한약상을 도우면서 아나키즘 운동에 앞장섰다. 옥중에 있는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를 면회하고 돌아와 의연금을 모아 송금을 하기도 했다. 그가 조직한 진우연맹 사건에 연루되어 1927년 징역 5년의 형을

29) 김주완, 「아나키스트 하기락과 시인들의 교분」, 『낙강문학』 제2호, 낙동강문화관, 2023, 12쪽.

30) 김성국, 「허유 하기락의 아나키즘 소고」, 『철학 연구』 제64집, 대한철학회, 1998, 85쪽.

31) 박노석, 『행운유수: 노석 박영환선생 팔순기념시문집』, 빛남, 1994, 130쪽.

선고받았다. 그리고 3·1운동 직후 손명표가 안의 지역 청년들을 선동하여 청년회를 열었다고 한다.³²⁾ 그의 출생년도(1913년)와 견주어보면 대략 1928년 전후 시기이다. 16세 때는 조선소년동맹 안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³³⁾ 그리고 안의보통학교 6학년 시절에 결성한 죽림육인(竹林六人)은³⁴⁾ 크로포트킨의 저서를 읽고 열정적인 토론도 하였다.³⁵⁾ 앞에서 언급한 시문집 『행운유수』에는 사진들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1933년 함양군 안의면 소재의 용추폭포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 ‘진주, 안의 지역 아나키스트 동지들과 함께’라는 설명이 있다. 사진 속의 인물은 총 16명이다. 그의 나이 20세 때이다. 송희복의 글과 이 사진으로 미루어볼 때, 노석은 어린 시절부터 아나키즘 사상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운동 기조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방 전 그의 이력과도 일치한다. 해방 후에도 부산에서 자주, 자립, 자율의 이념을 기치로 「자유민보」를 창간(1946년 2월 25일)하는 한편, 아나키스트 팸플릿 「자유연합」을 발간하였으나 군정 당국에 의해 발간 금지되었다.³⁶⁾

노석이 아나키스트로 활동했던 시기는 일제강점기의 독립투쟁 시기였으며, 문예 사조에 있어서도 신경향파의 영향력이 컸던 시기였다. 이

32) 손명표는 관동대지진 때 암살된 일본 아나키스트의 정신적인 지주 오스기 사카에(大杉榮)의 죽음을 두고 ‘도쿄의 인구를 다 잃더라도 오스기 사카에 한 사람을 잃은 손실만 못하다’고 추모했던 인물이다.(송희복, 「경남의 지역문학과 아나키즘의 상관성: 아나키즘 시인의 두 유형에 한하여」, 『국제언어문학』 제27호, 국제언어문학회, 54-55, 66-67쪽.)

33) 김성국, 「허유 하기락의 아나키즘 소고」, 『철학 연구』 제64집, 대한철학회, 1998, 87쪽.

34) 박영환, 하기락, 하충현, 유병우, 이철성, 노수열 등을 말한다. 하충현은 하기락의 동생이고, 노석은 하기락보다 1년 연하지만 보통학교 동기 동창이었다.(김주완, 「아나키스트 하기락과 시인들의 교분」, 『낙강문학』 제2호, 낙동강문학관, 2023. 참조)

35) 김성국·남송우, 「목요문화가 만난 사람: 아나키스트 시인 박노석옹」, 『목요문화』 96집, 목요학술회, 1992, 39-40쪽.

36) 김성국, 「허유 하기락의 아나키즘 소고」, 『철학 연구』 제64집, 대한철학회, 1998, 87-88쪽.

형진에 따르면, 1920년대 초 조선 지식인들은 아나키즘과 공산주의를 특별히 구별하지 못(안: 필자)했고, 아나키즘의 언어로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1920년대 초 사회주의의 주류는 아나키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나키즘이 1920년대 문화운동의 중요한 기반이었음을 밝히고 있다.³⁷⁾ 그러나 노석의 경우 해방전 아나키스트로서 시작 활동을 했던 흔적은 없지만 아마 문학청소년이었을 것이다. 해방 후에는 아나키스트로서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이승만 계열의 우파 민족주의와 연대’하며 위에서 언급한 각종 언론 활동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승만의 비민족적 정치 노선’과 대립·좌절하면서 시의 세계로 들어선다. 이것은 남북한을 막론하고, 사이비 애국심과 독재를 강요하던 국가주의에 대한 반발이었다. 노석은 ‘톨스토이의 애국주의 죄악’이라는 글(1957년경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에서 “애국주의란 최상의 경우라도 죄악이다”라는 톨스토이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톨스토이의 명제에 공감하면서, ‘전쟁 지도층의 입으로 호소된 애국주의’는, “지금 극소수의 특권계급을 제외하고는 승패국을 막론하고 국민은 못살게만 되고 망했다. 애국주의는 터무니 없는 개수작”으로 귀결된다. 파시즘에 맞선 아나키즘의 태도였다.³⁸⁾ 이러한 연유로 그는, ‘시인이 되기는 바쁘지 않다, 먼저 철저한 민주주의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³⁹⁾ 이러한 심정과 관련된 노석의 인터뷰가 있다.⁴⁰⁾

“내가 다감하던 소년 시절에는 시가 나의 인생의 전부인 때도 있었지. 그렇던 내가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민족의 광복과 사회 혁정(革正)

37) 이형진, 「1920년대 신경향파 문학과 아나키즘 사상 간의 상관성에 관한 논고」, 『석당논총』 73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9, 176-178쪽.

38) 박노석, 『백운산 뼈꾸기: 시와 수필』, 태화출판사, 1984, 188쪽.

39) 이 문장은 유시주가 시인 유진오를 회상하면서 나온 말이다.(김두식, 「토요관 김두식의 고백」, 『한겨레』, 2012. 3. 2.)

40) 김성국·남송우, 「목요문화가 만난 사람: 아나키스트 시인 박노석옹」, 목요학술회, 『목요문화』 96집, 1992, 41, 43쪽.

과 그 사상운동의 조직 속에 뛰어들게 되자 시는 써서 뭘 하나 하는 회의가 오기 시작했다. 이념의 구현을 위한 실천 운동이 있어야지. 시라는 것 가지고는 현실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그 당시는 현실이 그렇게 급했으니까.”

해방 이후 노석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ана키즘 운동과 관련해서는 하기락과의 교분이 중심이 된다.⁴¹⁾ 노석은 1946년 부산 금강사에서 열린 ‘경남북 ана키스트 대회’에서 임시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했다. 하기락이 개회사를 하였다. 여기서 그는 진양군 문산 출신의 시인 일영 홍두표(逸影 洪斗杓, 1904-1966)를 만난다. 이후 향과 이주홍, 청마 유치환 등과 교분하면서 시작 활동을 하게 된다.⁴²⁾ 그리고 ‘경남북 ана키스트 대회’가 있는 지 2개월 후 안의에서 ‘전국 ана키스트 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의 실무를 하기락과 노석이 맡았다. 이후 시간을 뛰어넘어 1987년 8월 21일 하기락의 주도로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제4차 ана키스트 대회’가 개최된다. 이 대회에서 ‘한국자주인연맹’(FAK) 사무국 간사로 하기락과 노석이 선임되었다. 이러한 연대기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노석의 삶은 해방 전후로 분단되는 것이 아니라 ана키즘 사상이 시와 일상에서 복류하고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의 과시즘에 맞선 일상의 ана키즘이 일관되게 그의 생활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작품들과 만년의 삶이 이를 웅변한다.

2) 사회와 시: 개인주의 ана키즘의 서정과 서사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노석의 시에 대한 관심은 1946년경부터 본격

41) 이하는 김주완, 「아나키스트 하기락과 시인들의 교분」, 『낙강문학』 제2호, 낙동강문학관, 2023, 16-18쪽을 참고할 것.

42) 부산 용두산 공원 산책로에는 홍두표의 시비, ‘나는 꿈이로소이다’가 세워져 있다.(최화수, 「웃고 울며 사랑하노라니: 부산 원도심 문화사랑방 뒷이야기(5)」, 2026. 네이버 블로그.)

화된다. 시문집 『행운유수』에 실린 노석의 연보를 살펴보면, 1946년 자유민보사 창간 동인을 기점으로,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문총) 경남지부 선전부장(1948년), 문총구국대 선전국장(1950년), 문예지 『영문』 주간(1956년), 문총 진주지부 문학부장(1956년), 영남 개천예술제 문학부 백일장 심사위원(1971년부터 20여 년간 역임) 등 문화예술관련 부문에 그의 활동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진주 출신인 아나키스트 시인 이경순과의 교류도 큰 몫을 차지하였을 것이다. ‘경남북 아나키스트 대회’에서 만나기도 하고, 『영남문학』의 동인 등으로 함께 활동했기 때문이다. 이경순은 노석보다 8년 연상이었다.⁴³⁾ 송희복은 노석의 시 세계를 ‘무정부의 행동과 무소유의 생활’로 압축한다.⁴⁴⁾ 그리고 등단 작품은 1948년에 동인지 『영남문학』에 발표한, 「불씨」로 추정된다. 그의 나이 35세 때이다. 아나키즘 사상과 운동에 집중된 시기에 나온 첫 시이다. 서정성이 물론 풍기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석이 한창 사회운동에 투신하고 있던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서정시로만 판단할 일은 아니다.

노석은 자신의 시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그리고 지인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떠했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노석 자신이 내리고 있는 평가에 대해 살펴본다. 그는 자신이 ‘시인이 되겠다는 두드러진 도사림 같은 것’도 없이 지내다가 어쩌다 보니 시인이라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말하며 자신을 ‘역외(域外)의 시인’으로 평가한다. 시작(詩作)의 경우에도 ‘심혈을 바쳐 몰두함이 없는 한눈을 팔듯 시간을 흘리다가 불현듯 마음 내키면 붓을 드는’ 정도였다고 겸허하게 자평한다. 그러나 시는 ‘구심(求心)의 수단’이었다고 말한다.⁴⁵⁾ 한편 노석의 시에 대한 친구나 지인들의 평은 다양하다. 특히 1994년의 『시문집』에 집

43) 이경순에 대해서는 김경복, 「이경순 시의 아나키즘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27집, 한국문학회, 2016을 참고할 것.

44) 송희복, 「경남의 지역문화와 아나키즘의 상관성, 아나키즘 시인의 두 유형에 한하여」, 『국제언어문학』 제27호, 국제언어문학회, 2013, 68쪽.

45) 박노석, 『백운산 뼈꾸기: 시와 수필』, 태화출판사, 1984, 117-118쪽.

중적으로 실려 있다. 그리고 노석이 백운산 산장 생활을 할 때 기르던 고양이(이름 뺨디)의 눈으로 본 평은 흥미롭다. 뺨디는 산장에 찾아온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고양이가 들은 지인들의 시평은 다음과 같다. “노석은 바로 이 생활이 신데 또 시는 써서 뭘 해! 죽은 청마(馬)도 노석의 시에 대해선 왜 그런 말을 한 게 있잖아. 사람이 예술에 시달린대서야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청마는 노석은 여태껏 시를, 그의 인생을 소요하는 길 위에서 어쩌다 한 눈이나 팔듯 그것에 매달림이 없이 너그럽게 사랑해 오고 있는 셈이라고.” 다른 친구가 말을 잇는다. “음, 동기(東驕. 이경순 시인: 필자 주)도 그런 말을 했던가? 노석은 ”환상(幻像)과 정한(情恨)으로 투명한 내일への 꿈을 오늘에 살고 있는 유토피아라구. 그게 아마 적평(適評)일 거야.” “허긴 그렇군. 운성(暈城, 구상 시인: 필자 주)의 얘기도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 노석이 노래하는 세사(世事)나 자연의 정한은 소박하면서도 본명(本命)에서의 울림을 갖기 때문에 선명와주(蟬鳴蛙奏. 요란한 말, 진실이 수반되지 않은 꾸며진 말: 필자 주)의 시류들과는 비할 바가 아니라구. 파성(巴城, 설창수 시인: 필자 주)이 노석 시는 몰기적(沒己的) 담수질이 라고 한 거나, 김춘수(金春洙) 평필(評筆)에 노석 시는 작가 자신이 시를 의식하고 쓰여진 시가 아닌 아마추어의 시란 뜻도 결국은 같은 말이 되겠지.”⁴⁶⁾ 이런 평들의 공통적인 점은, 노석의 시는 완전히 힘을 뺀 자연스럽고 가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 중에서 아나키스트 시인인 이경순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들은 그가 노석의 시를 ‘아나키 유토피아’의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나키 유토피아의 주된 특징은 사랑과 우정과 노동, 그리고 자유와 자치와 자연을 강조한 것이다. 유토피아는 ‘있어야 할 세상에 대한 소망’이다. 엠마 골드만은 밀레의 그림이나 휘트먼의 시에서 아나키즘을 발견한다.⁴⁷⁾ 유토

46) 위의책, 101쪽.

47) 박홍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동자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아나키 유토피아』, 영남대학교출판부, 2013.

피아(utopia)를 뜻하는 영어 Nowhere에도 ‘있어야 할 세상’(No-where가 아닌 Now-here)에 대한 염원이 들어있다. 노석 시의 주조(主潮)다. 노석의 시집 『바위의 염원』을 떠올릴 수도 있다.

노석의 작품에 대한 전문 비평가들의 평가를 살펴본다. 문학 비평 이론에는 형식주의와 역사주의가 있다. 이를 거칠게나마 요약한다면 형식주의는 ‘이미지, 상징, 비유, 중의성’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역사주의는 작품(텍스트)이 담고 있는 맥락(컨텍스트)을 중시한다. 즉 문학 생산의 역사적이고 경제적인 면을 함께 살피려는 맑스주의 비평과 궤를 함께 한다.⁴⁸⁾ 그러나 이 둘을 엄격하게 양분할 필요는 없다. 서정과 서사는 서로 넘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많다. 아나키스트 예술가로 평가받는 국내의 작품 사례를 봐도 확인할 수 있다.⁴⁹⁾ 엔니오 모리꼬네 작곡, 조안 바예즈 노래, <Here's to You>는 사범 살인으로 유명을 달리하게 된, 아나키스트 사코와 반제티를 기리는 노래다.⁵⁰⁾ 이들이 처형된 지 50년이 흐른 때, ‘반제티의 유언’이 자유와 정의를 위한 국제적인 노래가 되었다. 세계산업노동자연맹(IWW)의 일원이자 아나키스트였던, 조 힐(Joe Hill)의 노래 <Should I ever be a Soldier>도 마찬가지다. 이들 작품은 따뜻한 서정 속에 풍부한 역사 이야기, 즉 서사가 담겨있다. 유치환, 신동엽 등의 작품도 그러하다. 이러한 맥락을 견지하면서 노석의 작품을 살펴보면 그의 첫 시 「불씨」도 웅숭깊게 다가온다.

48) 강창래, 『문학의 죽음에 관한 소문과 진실』, 교유서가, 2022.

49) 비록 현대적 의미의 아나키스트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귀거래사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자발적으로 부와 권력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한 도연명을 개인주의 아나키스트 시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박홍규, 『내 친구 도연명: 농사꾼 아나키스트 시인』, 틈새의시간, 2025.)

50) 줄리아노 몬탈도(Giuliano Montaldo) 감독의 영화 <Sacco & Vanzetti>(1971) 주제작자이다. 1921년 유죄판결을 받고 1927년 처형된 사코와 반제티에 대해서는, Bruce Watson(2009)를 참고할 것.

「불씨」

외로움에도 지친 밤이면
입김 살려 촛불을 끄듯이
아무도 몰래 스며온 네 생각

꺼 버리려 하여도
까무라질 듯 살아난 나는
너는 꺼질 줄 모르는 불씨.

(『시문집』, 161쪽, 전문)

이후 첫 시집 『바위의 염원』이 출간된다.(1973년) 1984년에는 『백운산 뼈꾸기』,⁵¹⁾ 그리고 1994년에는 『시문집』이 나온다.

위의 책들을 관통하는 정서구조(the structure of emotion 또는 the structure of feelings)는 서정과 서사의 교집합이다.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정서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정서는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 계급 분석 단위까지 포함한다. 둘째, 정서는 ‘경험’이라는 말로 대치할 수도 있지만, 경험이라는 말이 지닌 과거형을 넘어 현재와 미래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다. 셋째, 정서‘구조’는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적 실체이다.⁵²⁾ 이런 점에서 노석 시의 정서구조는 서정과 서사의 만남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형수는 서정의 반대말을 ‘권태’라 부른다.⁵³⁾ 필자들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나를 둘러싼 세계가 나에게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을 때 서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세상에 둔감하고 매사에 게으른데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이 자극은 세상에 대한 관찰이 될 수도 있고, 부조리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다. 그

51) 참고로 『백운산 뼈꾸기』(1984)의 붓글씨로 된 책 안쪽 표지 제목(內題題字)은 허유 하기락 선생의 글씨이다.

52) 정서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lliams, Raymond, 이일환 옮김, 『이념과 문학』, 문학과 지성사, 1982.를 참고할 것.

53) 김형수, 『삶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 도서출판 아시아, 2015.

래서 서정과 서사를 굳이 나누고 싶지 않다. 김형수는 또 다른 책에서 ‘서사’를 ‘우여곡절’이라고 한다.⁵⁴⁾ 서사에는 일상-사건-사태-역사가 어우러져 있다. 세상의 우여곡절을 풀어내고 있는 셈이다. 문학 평론가 구모룡 교수는 SNS에서 “서정이 자기를 벗어나지 못할 때, 나르시시즘의 한계에 갇힐 때, 그럴듯한 사기가 될 수도 있다(...) 타자와 사물로 나아가야 한다. 고통에 대한 자각이 요긴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화가 정봉진도, “서정성과 서사성. 꽃이 아름답지만 그 꽃을 그리지 않는다. 꽃 피우는 세월 그 아픔을 그리면 서정성이 담기고, 무리진 아픔 그 꽃들이 서사가 되고, 역사가 되느니.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을 그린다. 어제나 내일이나 사람살이 꽃이다.”라고 자신의 작품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 말한다. 모두 서정과 서사가 넘나드는 표현들이고, 노석의 시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문학평론가 이명원 교수도 어디선가에서, ‘서정시란 마음의 생태학’이라고 했다. 필자들은 평소에도 생태계를 ‘POET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P는 사람들(Population), O는 우리들의 ‘뭍’(몸+마음)을 담고 있는 조직이나 공동체(Organization), E는 사회 또는 자연환경(Environment), 그리고 T는 문명과 야만을 넘나드는 기술(Technology)이다. P-O-E-T의 요소들이 ‘흔들리는 균형’을 유지 못하면, 생태계는 위협받는다. 그리고 POET는 시인이기도 하다. 시인은 생태계의 파수꾼이다. 사람들과 공동체와 환경과 문물이 미치는 악영향을 거부하고 적재와 적소를 지켜내려는 투쟁가이기도 하다. 노석의 시에는 이러한 면모가 담겨있다. 특히 20여 년간 백운산 묘지기를 하면서 남긴 글들에서 이를 절실히 느낄 수 있다. 개인주의 아나키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납득할 수 있다. 특히 「나의 방은」이 그렇다.

서정과 서사를 넘나드는 노석의 시 중에서, 송희복은 아나키즘의 면모가 가장 잘 배어 있는 시로 「어느 시인의 독백 1」을 꼽는다. 노석의

54) 김형수, 『삶은 언제 예술이 되는가』, 도서출판 아시아, 2014.

자화상 또는 자성록에 해당하는 시다.⁵⁵⁾ 나는 여기에 몇 편을 더 추가하고자 한다. 「나를 속인 것은-절량(絶糧) 농촌 지대를 가다」, 「다시 8·15에 부치는 노래-그날의 상기를 위하여」, 「4월이 오면」, 「나의 방은」 등이 그것이다.

「어느 시인의 독백 1」

너는 시인이 아니다.

시인은 인색함이 없이 두루
아주 깨끗하게 비우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또 남을 의식하는 구애 속에
살아서는 아무것도 될 것이 없다.

본능아가 돼야 하고
절대 자유인이 돼야 하고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만큼 야생마처럼 돼야 한다.
그러나 시인은 실은
남모르는 구애 속에 살고 있다.
너는 시인이 아니다.

(『시문집』, 115-116쪽, 전문)

「나의 방은」

낡은 스텐트 지붕의 단간 방
그러나 밝은 남창이

55) 송희복, 「경남의 지역문화와 아나키즘의 상관성, 아나키즘 시인의 두 유형에 한하여」, 『국제언어문학』 제27호, 국제언어문학회, 2013, 67-68쪽.

넓게 트여 있는
늘그막 십 년을 지치긴
때 묻은 나의 방은
밤이면 한 달빛이
놀다 가기도 하고
긋은 비라도 오는 그런 날은
낙수물 소리가 구성져서
그 소리 낭만의 가락으로
젖어 내리고
문득 생각이 난 듯
개구리 소리가 왈작히
쏟아져 들기도 한다.
보리 누름이 되면
원 종일을 두고서
뼈꾸기 소리가

무슨 哀소인 듯 슬피 울어
마음 설레이게 하고
거기에 지취귀는
산새들까지 끼어들면
나는 일체의 사념을 끊고
한적하게 먼 산만
바라보며 앉아 있다.
이렇게 살다 갈
여기는 나의 인생의 종착역
누구의 범접도 없는
자유 천지, 내 사랑하는 왕국
야!
그러나 언젠가
내 낙엽이 지듯
떨어져 가는 날
속절없이 외롭게 될 나의 방。

(박노석, 『백운산 뼈꾸기』, 태화출판사, 1984, 17-18쪽 전문)

4. 나가며

시인 노석의 삶을 살펴보면, 오르한 파묵의 다음과 같은 문장이 떠오른다. 그는 시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진정한 시인의 물음은 항상 같아. 오랫동안 행복하면 시는 평범해지지. 오랫동안 불행해도 시를 생생하게 쓸 힘을 찾지 못해. 행복과 진정한 시는 아주 짧은 기간 함께 존재해. 그 기간이 지나면 행복은 시와 시인을 평범하게 만들거나, 진정한 시는 행복을 망가뜨리지.”⁵⁶⁾ 그리고 정태춘의 시 역시 노석이 견지한 아나키즘의 정수를 반영하고 있다.⁵⁷⁾

아나키

사적 자유에 대한 뜨거운 열망
통제와 차별에 대한 맹렬한 거부
정의와 평등에 대한 열렬한 지지
합평, 구레, 임실, 청양, 하동, 고성, 부여, 횡성, 포항, 거제...
작은 정부(하락)

정태춘의 시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노석의 고향 함양 안의도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경남 지역은 아나키스트 시인들이 유달리 많이 배출된 곳이기도 하다. 2022년 5월 영화의 전당에서 <아치의 노래, 정태춘> 시사회가 끝난 후, 관객들과의 대화에서 정태춘은 대략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저는 사람들로부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이상주의자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래주의자라기보다 오히려 과거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렵 채집 시대의 그것, 즉 생산성은 낮으나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를 늘 그려왔다는 의미에서 저는 과거주의자

56) Pamuk, Orhan, 이난아 옮김, 『눈 1』, 민음사, 2018, 190쪽.

57) 정태춘, 『집중호우 사이: 정태춘 노래 시집』, 호밀밭, 2025, 42쪽.

입니다.” 실제로 수렵 채집이 이루어지던 사회는 농경사회보다 오히려 빈곤이 덜했다는 연구들도 많다. 그러나 이 말은 당연히 수렵채집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교환가치를 절대시하는 자본주의 상품 미학의 허구성을 날카롭게 꿰뚫어 본 말이다.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의 입을 빌려, 수렵 채집 시대를 ‘황금시대’라 말한다. 그가 말하는 황금시대는 황금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네 것’과 ‘내 것’이라는 말을 몰랐던 시대였고 어느 누구도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애써 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때를 말한다. 그래서 필자들은 정태춘의 이 말을 노동과 예술이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염원하는 ‘역설(逆說)의 역설(力說)’이라고 생각한다.⁵⁸⁾ 노석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아나키즘 예술의 전통을 지금 누가 잇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통은 축적적으로만 구축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날조된 전통(invented tradition, 홉스봄의 용어)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미래의 소중한 자원인, ‘떠오르는 전통’(emergent tradition) 즉 ‘선별적 전통’(selective tradition,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용어다)을 채굴하는 것이다. 시가 세계를 변혁하진 못할 수 있어도, 사람은 바꿀 수 있다. 자주인(自主人, self-master)으로. 테리 이글턴은 이렇게 말한다. “사자와 조련사, 그리고 관객 중 누가 가장 힘이 셀까? 사자다. 그러나 사자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⁵⁹⁾ 사자에 자주인, 조련사와 관객에 각각 국가와 자본을 대입해 본다.

58) 이성철, 「지금, ‘시장 밖 예술’을 생각하며」, 시장밖예술프로젝트 집행위원회, 『바깥으로 한 발: 시장밖예술프로젝트 2024』, 호밀밭, 2024를 참고.

59) Eagleton, Terry, 정남영·김명환·장남수 옮김, 『문학이론입문』, 창작과 비평사, 1986.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김두식, 「토요판 김두식의 고백」, 『한겨레』, 2012. 3. 2.
최해군, 「소설가 김말봉과 그 곁 사람들: 김말봉과 박노석」, 『부산일보』,
2003. 4. 21.
최화수, 「웃고 울며 사랑하노라니: 부산 원도심 문화사랑방 뒷이야기(5)」,
2016. 네이버 블로그.

2. 단행본

- 금수현, 『금수현 나의 시대 70』, 월간음악출판부, 1989.
강창래, 『문학의 죽음에 관한 소문과 진실』, 교유서가, 2022.
고영란, 윤인로 옮김, 『불량한 책들의 문화사: 일본제국의 출판자본, 식
민지 조선의 출판시장과 만나다』, 푸른역사, 2025.
김미라, 『예술가의 지도: 예술가의 초상, 그리고 그들의 네트워크』, 서
해문집, 2014.
김형수, 『삶은 언제 예술이 되는가』, 도서출판 아시아, 2014.
_____, 『삶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 도서출판 아시아, 2015.
김창덕, 「역자 서문」, 小松隆二, 『일본의 아나키즘 운동사』, 도서출판 책
과나무, 7-9쪽, 2025.
남종석, 『더 나은 진보는 불가능할까』, 두두, 2019.
장석준, 『사회주의』, 책세상, 2013.
박노석, 『백운산 빼꾸기: 시와 수필』, 대화출판사, 1984.
_____, 『행운유수: 노석 박영환선생 팔순기념시문집』, 빛남, 1994.
박홍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동자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아나키
유토피아』, 영남대학교출판부, 2013.

- _____, 『내 친구 도연명: 농사꾼 아나키스트 시인』, 틈새의시간, 2025.
- 서의윤, 「웁긴이 해제: 오스카 와일드의 개인주의와 유티주의를 푸는 열쇠」, Oscar Wilde, 『미학 강의: 사회주의에서의 인간의 영혼』, 도서출판 줍쌀한알, 93-139, 2018.
- 이성철, 「지금, ‘시장 밖 예술’을 생각하며」, 시장밖예술프로젝트 집행위원회, 『바깥으로 한 발: 시장밖예술프로젝트 2024』, 호밀밭, 2024.
- 이한섭, 『일본어에서 들어온 우리말 어휘 5,800』, (주)박이정, 2022.
- 유대철, 『대한민국철학사』, 이상북스, 2020.
- 정태춘, 『집중호우 사이: 정태춘 노래 시집』, 호밀밭, 2025.
- 夏目漱石, 송태욱 옮김, 『갱부』, 현암사, 2014.
- _____, 임지인 옮김, 도련님, 올리버, 2025.
- 柄谷行人, 조영일 옮김, 『근대문학의 종언』, 비고, 2020.
- 谷口ジロ, 関川夏央, 오주원 옮김, 『도련님의 시대』(전5권), 세미콜론, 2015.
- 小松隆二, 김창덕 옮김, 『일본의 아나키즘 운동사』, 도서출판 책과나무, 2024.
- 成田龍一, 이규수 옮김, 『다이쇼 데모크라시』, 어문학사, 2011.
- 柳父章, 김옥희 옮김, 『번역어의 성립: 서구어가 일본 근대를 만나 새로운 언어가 되기까지』, 마음산책, 2011.
- Holyoake, George Jacob, 정광민 옮김,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 그물코, 2013.
- Eagleton, Terry, 정남영·김명환·장남수 옮김, 『문학이론입문』, 창작과 비평사, 1986.
- _____, 이재원 옮김, 『이론 이후』, 길, 2010.
- _____, 이강선 옮김, 『문화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2021.
- Pamuk, Orhan, 이난아 옮김, 『눈 1』, 민음사, 2018.

- Tancrède Ramonet, <신도 주인도 없다: 아나키즘의 역사>, 다큐멘터리 (2부), 2017.
- Ward, Colin, 김성국 옮김, 『아나키즘이란 무엇인가』, 이학사, 2019.
- Seidensticker, Edward, 허호 옮김, 『도쿄 이야기』, 이산, 1997.
- Watson, Bruce, 이수영 옮김, 『사코와 반제타: 세계를 뒤흔든 20세기 미국의 마녀재판』, 삼천리, 2009.
- Wilde, Oscar, 서의운 옮김, 『미학 강의: 사회주의에서의 인간의 영혼』, 도서출판 좁쌀한알, 2018.
- Williams, Raymond, 이일환 옮김, 『이념과 문학』, 문학과 지성사, 1982.

3. 논문

- 김경복, 「이경순 시의 아나키즘 연구」, 『한국문학논총』제27집, 한국문학회, 2016, 193-227쪽.
- 김성국·남송우, 「목요문화가 만난 사람: 아나키스트 시인 박노석옹」, 『목요문화』 96집, 목요학술회, 1992, 38-53쪽.
- 김성국, 「허유 하기락의 아나키즘 소고」, 『철학 연구』제64집, 대한철학회, 1998, 85-113쪽.
- 김주완, 「아나키스트 하기락과 시인들의 교분」, 『낙강문학』 제2호, 낙동강문학관, 2023, 56-88쪽.
- 송희복, 「경남의 지역문학과 아나키즘의 상관성, 아나키즘 시인의 두 유형에 한하여」, 『국제언어문학』제27호, 국제언어문학회, 2013, 53-82쪽.
- 이성철,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변형」, 『사회 사상과 문화』 27권 1호, 동양사회사상학회, 2024, 183-219쪽.
- _____, 「노동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빌 더글러스의 <동지들>을 중심으로」,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Vol.9, No.3,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2025, 177-193쪽.

- 이형진, 「1920년대 신경향파 문학과 아나키즘 사상 간의 상관성에 관한 논고」, 『석당논총』 73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9, 175-218쪽.
- 정낙림, 「하기락과 근대성의 문제: 해방과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영남학』 제84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학연구원, 2023, 7-39쪽.
- 조세현, 「중국 아나키즘에 나타난 ‘西洋’ 이미지: 新世紀派와 天義派의 아나키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35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3, 335-367쪽.
- 白浩, 「無政府主義精神與20世紀中國文學」, 武漢大學博士論文, 2005.

<Abstract>

Noseok Park Young-hwan: A Poet of History and the
Individual, Narrative and Lyricism

Lee, Sung-Chul* · Lee, Ji-Han**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s of freedom, autonomy, and individuality inherent in anarchist thought and movements, as reflected in the life and works of the poet Park Noseok. Chapter 2 investigates Park's personal and historical background, analyzing how he embraced anarchism and incorporated it into his poetic practice. Chapter 3 provides a critical reading of his major works, focusing on the interweaving of history and individuality, as well as narrative and lyricism. Finally, Chapter 4 discusses the significance and future prospects of Park Noseok's oeuvre as that of an anarchist poet.

Key Words: anarchism, individualist anarchism, Noseok, Park
Young-hwan, lyricism and narrative

■ 논문접수 : 2026년 03월 21일

■ 심사완료 : 2026년 04월 14일

■ 게재확정 : 2026년 04월 14일

*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Sociology,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Chinese Studi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